

# 더욱 튼튼한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해야할 때



허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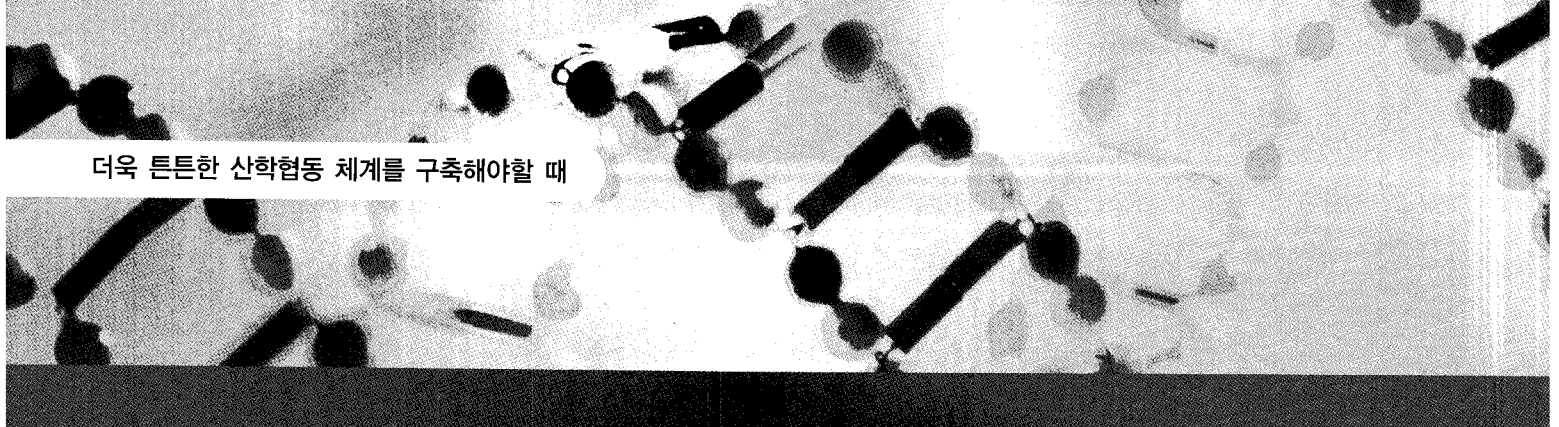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부회장  
한국아쿠르트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상무이사

인류는 18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쳐, 20세기 후반에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생명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시대가 새로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실 공히 바이오산업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의 이 산업 분야는 현재 유전자 치환이나 세포 융합을 이용한 대량 배양과 효소를 사용해 물질을 합성하는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등 생체기능 자체를 응용한 기술에 의해 자연에는 극히 미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미 당뇨병 특효약 인슐린, 제암제(制癌劑) 인터페론 등이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과 산업과의 견고한 융합을 통해 그 힘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국내 생명과학분야에서 학문의 발전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을 항상 제일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발효산업과 미생물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산

학협동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 우리 학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학문과 산업 분야 모두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재를 산학이 공동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바이오산업의 주력 방향은 녹색성장입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성장 동력예의 장기투자를 통해 바이오산업시대의 선도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투자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성공 가능합니다. 연구성과의 철저한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나아갈 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과 같은 견고한 네트워크 연결 모델을 구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굳은 협력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산학연의 더욱 탄탄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화는 건설적 제안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을 통한 창조적 비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국제화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화에



더욱 튼튼한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우리 학회가 선도적 위치에 서려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학술대회 등을 통한 다양한 국제석학들과의 교류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은 후학들이 찾을 수 있는 산업 비전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학회가 생물공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실현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계에 바이오강국으로 알릴 수 있는 산업생물공학 틀을 구축하고 중요성을 일깨워 우리 학회지의 국제화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2009년 중책을 맡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